

사순제2주일

기도서 P. 253  
 제1독서(창세 22, 1-2. 9a  
 10-13. 15-18)  
 제2독서(로마 8, 31b-34)  
 복음(마르 9, 1-9)

#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⑤ 5098 ③ 3201

□ 감론



## 아브라함의 신앙시련

—창세 22; 1-10—

김정원 신부

아브라함은 어려운 신앙의 시련을 받게 된다. 하느님은 시험하시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파멸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신과 하느님께의 사랑이 얼마나 강찬가를 시험하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도 제사를 바칠 수 있다면 하느님께 대한 그 강도(強度)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느님의 뜻을 전적으로 거역한 채 미신적인 의미에서 「바알」 또는 「모룩」을 위해서 현신적으로 제사를 바쳤던 것이다. (열왕하 23: 10, 예레 7: 31, 19: 5, 예제 23: 37)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것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시험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 하느님께서 사람의 제물을 원하실까?
-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자기에게 한 약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닐까?
-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을 유의하라)을 바치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신가?

그러나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에 순종하였다. 그리하여 명령대로 이사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모리아 산은 야모리 땅이며, 후일에 성전이 들어선 곳이다. 역대하 3: 1)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봐야 한다. “나는 이 아이를 메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창세 22: 5b) “애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창세 22: 8) 함으로 이사악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려 주신 하느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신뢰하였던 것이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사악을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기꺼이 바쳤읍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였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 떠난 죽었던 이사악을 되찾은 셈이 되었읍니다. (히브 11: 17-19).

말만으로도 「신앙,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에로, 「보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에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아는」 단계란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안다는 것이다. 우선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어떠한지?

(노송 천주교회 주임신부)



## 사정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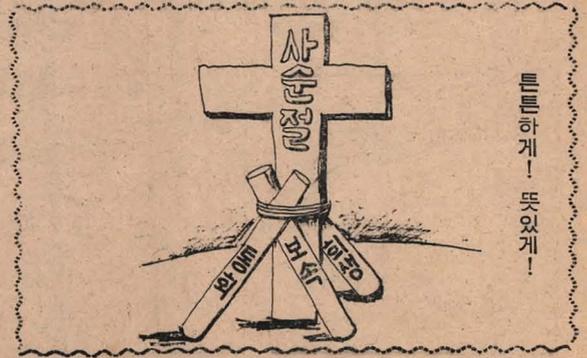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일컬어 사정(事情)이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크게 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봉급을 올려줄 수 없는 경우처럼, 그 형편이나 까닭이 뚜렷한 것이 그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말 못할 딱한 사정처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다른 하나이다.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어떻게 해달라고) 무엇을 간청함」을 일컬음도 역시 사정(事情)이라 한다. 빛을 진 사람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간청함을 「사정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그것은 맥의 사정이요”하고 깔아뭉개버리면 사정하는 맛은 없어져 삭막해지고 만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남에게 드러내놓고 밝히기 어려운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자주 있어서는 안된다. 몇년전에 이 사회의 비리(非理)들이 어떤 신문에 연재된 적이 있었다. 유언비어처럼 떠돌던 말들이 지상(紙上)에 자리를 잡으니 무언가가 확실하게 잡힐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그 연재물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고 말았다. 분명한 이유없이 그냥 <사정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구구한 억측이나 제멋대로의 추측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금 세상을 흔히들 불신사회라고 말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에도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부모만 알고 있는 가정사정을 감추지 않고 식구들에게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럴때 식구들은 그 사정을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숲정이 산책



# 주여!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골 사제의 기원—

대야본당 한 기 호 신부

보좌시절을 거쳐 이곳 대야본당에 본당신부로 부임하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햇수로로는 벌써 6년째가 되었으니 세월이 빠름을 실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77년 7월) 부임하여 한 두달을 지내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했었을 때엔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스러웠고 암담하기만 했다.

창문에는 방충망 한 장이 붙어있지 않아 그 무더운 여름날 밤이면 밤마다 하루살이와 모기떼들이 급습하여 나를 어지간히도 괴롭혔고,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몹씨도 짜서 마시기가 무척 고약스러웠다.

비바람이 내리칠때면 성당 지붕과 사제관 지붕은 새고 지붕 함석이 춤추는 소리는 전군도로 차량 소음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러웠고, 성당 마당은 질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전기선들은 낡을테로 낡아 한번은 누전사고가 일어나 하마터면 그나마 있는 건물마저 날려버릴뻔 했다.

주일미사엔 고작 100명도 채 못되는 교우들이 미사에 참여했고, XX공소에 주일미사를 드리러 갔을 땐 공소 회장과 여교우 2명만 참석했을뿐 아무도 오질 않았다. 한주간 주일헌금은 고작 6천원정도, 본당운영은 보조금까지 합쳐도 항상 마이너스였다.

5년동안 본당신부가 없었던 때가 있었던지라 본당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무슨 일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저히 마음을 붙이고 일할 수가 없었다. 용 꼬리보다는(보좌신부) 닭 대가리가 낫다는 본당 주임신부의 시작이 이런 모습속에서 밖에 나타날 수 없더니 조금은 한심스러웠고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때가 되어 일대 용단을 내리고 발벗고 맨발로 뛰었다.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음 후임신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립본당을 만드는 일과 성전, 사제관을 전면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수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재교육과 각종 신심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구태의연한 교우들의 의식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폭군 「네로」의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 「네로」의 칼자루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휘둘러졌다. 조금은 무리가 갔고, 반발과 후휴증도 없지 않았다. 나도 실망에 빠진 때가 여러차례 있었고 울기도 많이 했다. 그러나 아무리 억센 교우들도 본당을 초임으로 맡아 일하고자 하는 내 안에 타오르는 의욕의 불을 끌수는 없었다. 마침내 2년 안에 본당운영의 자립이 실현되었고, 성전과 사제관이 현재 짓가로 1,500여만원

의 공사비로 원상대로 복구되었다. 해가 갈수록 많은 본당 교우들이 나를 따라 주었고, 교우들의 합심 협력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으며, 예비 교우들도 조금씩 늘어만 갔다.

지난해엔 본당 설정 25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대야에 본당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전교수녀원을 건립하기로 교우들의 뜻과 힘을 모아 지난해 6월부터 차근차근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주께서 이 본당에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셨을인지 1,880만원의 공사비로 30평의 신축 사제관을 짓고 현 사제관을 단장하여 수녀원으로 내어주게 되었다. 본당교우들의 피눈물나는 희생과 정성어린 봉헌은 보잘것 없는 미약한 사제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교우들의 정성과 나의 손때 묻은 본당이라서 그런지 처음 부임하여, 살때와의 느낌과는 달리 이 본당에서 한 10년은 살고 싶은 지금의 내 심정이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자금 부족으로 교우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축 건물의 낙성식을 치를 수 없음과 백방으로 전교수녀를 모시기 위해 찾아나선 결과 이번 3월 1일에 당장 부임하신 두분 전교수녀들의 생활 필수품 및 공사비 등을 마련할 수 없는 점이다. 우선 당장 밥그릇, 수저, 연탄접게 한개가 아쉽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주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 본당에 축복을 내려주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마저 아낌없이 바쳤으니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대야본당을 위해 은인이 되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새로 부임하신 두분 수녀님과 본당의 교우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510-72 전북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천주교회  
(전화 5-2011)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려주고 멍에를 풀어 주는 것, 알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입혀주며 제 꿀육을 모르는 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등 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이사 58 : 6-7)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 중앙로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513  
한 철 재(비오)

주단·포복(홍수·회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핑크)카벤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사무소 이전안내  
장소: 전주시 경원동 3가39  
전북투자금융 건너편  
세무사 오두석사무소 2층  
**사법서사 李泰榮**  
전화 ②9894·⑥1213

의료과학기술계·싱크·온수기  
**동남 의료 과학상사**  
**백곰표 썬크 상사**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전화 ⑥6900 야간 ⑥0496  
김 낙 균(요셉)

**ECCLESIA**

□ 레지오와 병상의 젊은이

전주 대학병원에는 얼마전 하지마비와 합병증으로 4년동안 입원 가료중인 한 젊은이가 있다. 그는 주위의 환자들에게 복음전파를 하기 위해 작은 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레지오의 전 단원은 이 젊은이의 전교 열의에 동참하여 문고 설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흐뭇한 소식이다.

곳곳에 한창 레지오의 활동이 현저하게 눈에 드러나고 있는 요즘, 순정이, 임실 본당이 「꾸리아」 발족을 보았고, 또한 고창, 무주, 함열본당 등에서도 지난 2월에 「쁘리시더움」이 탄생을 보는 경사를 맞이했다.

아무튼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묵묵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전 단원들의 선행과 한 병상 젊은이의 고운 뜻에 두루 감사를 드린다.

□ 산신앙을 체험케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

지난 2월 25일~28일 가톨릭 센터에서는 금년 제3차 「M. B. W 목사회」를 갖았다. 사정상 28명밖에 참석치 않아 좀 서운하긴 했지만, 모인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열어 자신의 신앙체험과 형제적 사립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다 만끽했다고 한다.

본당 공동체 육성을 모두가 다짐하는 이때 다음 목사회(3월 11일~14일)에는 더 많은 형제들이 참여하여 더욱 알찬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기를 다시 빌어본다.

□ 제2차 레지오 간부 연수회

지난 2월 27일·28일 양일에 걸쳐 레지오 간부들의 제2차 연수회가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다.

160여명의 간부들은 몇차례의 강의와 레지오 활동을 통한 체험담을 교류하면서 어느 때보다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특히 이날 있었던 「공의회 문헌에 나타난 성모마리아상」 강의를 통해서 간부들은 새로운 성모상의 인식과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있을 제3차 연수회는 4월 4일·5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 작은 그리스도에게도 봄나물 바구니를...

임실본당 조 정 오 신부

여기 봄이 오는 소리가 퍼로운 한 학생이 있습니다.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산골짜기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희망과 소생의 기쁨에 움추린 가슴을 활짝 펴고 맞이해야 할 꽃소식이 마냥 두려웁기만 합니다.

한창 티없이 밝은 모습으로 봄나물을 캐기 위해 산과 들을 찾아야 할 섬진중 2학년 이 강순(여, 15세)양은 나물캐기를 추억속에서 그리며, 삶마저 포기해야 할 절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왼쪽 다리 관절에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던 중 골수염이라는 재진단을 받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앞길이 캄캄하여 치료를 포기하고 3개월째 누워서 뺨한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한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손길 이 이 가녀린 소녀에게 내려져 봄소식과 함께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몇마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임실본당이나 순정이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심이(448)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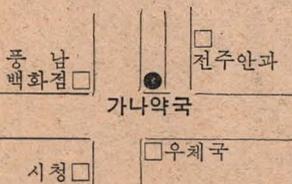
명화

초대 받은 사람들

전주 중앙극장에서 3월 3일부터 상영(2주간 예정)  
(상영시간: 오전 11시, 오후 1·3·5·7·9시)

- 한국 최고의 작품상을 받은 한국천주교의 대 순교사극!
- 뜻깊은 사순절 맞아 값진 생가다들도록 모든 교우들의 빠짐없는 관람을 바랍니다
- 「교우 우대권」 각본당에서 배부. 예미자, 친지들께도 많은 초대있기 바랍니다.
- (우대권 지참자 900원, 일반 2,000원)

가나약국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가나약국 (구 명보약국)

약사 활의목(파로)  
전화 ② 5652  
전주 중앙동3가 73-1

금·은·보석·시계 일성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동)  
남 베로니카

신진 가스상사

신속배달 가스렌지 기구시설 수리상당  
전화 ③ 5448 1071  
K. B. S 전주방송국 앞 최안드레아

